

유은혜 취임에 불붙은 ‘학종 비교과요소’ 폐지론 “금수저·깜깜이전형” 시민단체 목소리 높여

학종 비교과 준비부담 커
고소득층에만 유리 지적

교육부 수장이 바뀌면서 이미 일단락된 대입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금수저 전형’이나 ‘깜깜이 전형’으로 지목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교과 요소를 줄여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종 전형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어 이들의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등 교육 시민단체들은 4일 오전 서울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종의 비교과 요소를 대폭 삭제해 학부모와 학생 부담을 없애고 입시 불공정 시비를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학종은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에 입학사정관제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당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등 교육 시민단체들은 4일 오전 서울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종의 비교과 요소를 대폭 삭제해 학부모와 학생 부담을 없애고 입시 불공정 시비를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시엔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과 영역 평가를 중심으로 했다. 하지만 의미있는 교과 평가 기록이 부족해 비교과 영역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이명박 정부 판단에 따라 비교과 중심 학종으로 변화했다.

비교과 영역은 소논문이나 수상경력, 자격증,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으로 학교 교실밖의 활동에 따른 결과물로 학교 교육만 받아서는 준비하기 힘들다. 학종이

학교밖 다양한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고소득 계층에 유리해 ‘금수저 전형’으로 낙인찍힌 이유다.

교육 시민단체들은 학생부 기록 중 수상 경력, 자율동아리, 소논문, 자격인증,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은 삭제하거나 대학 입시에서 미반영하고,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학종 비교과 요소 대폭 폐지는

국민들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으며, 반발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적고, 폐지를 발목 잡을 연계 정책들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해와 올해 초 시민참여단을 통한 학종 개선안을 낸 데 대해 “교육부가 학종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진행하면서 17만명의 학술 설문조사를 통해 학종 개선을 위해 비교과 요소에 대한 불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모은 시민 100인들이 이런 흐름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종은 교과 평가 중심으로 운영되되, 교과 영역 평가는 5지 선다 객관식 문제 풀이 평가를 없애고 프로젝트수업과 논술평가 등으로 수업을 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2016년 전국 2만4912명의 고교생과 학부모, 교사 대상 대입 전형 인식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학종의 문제점으로 ‘준비부담’을 꼽았다. 이어 ‘수준비단절’, ‘공정성’, ‘학교 프로그램, 교사능력 부족’ 등이 꼽혔

다. 또 학종 비교과활동 준비가 부담된다는 학생은 응답자의 86.7%에 달했고, 대다수 학부모(85.3%), 교사(92.5%)도 비교과활동 준비가 힘들다고 했다. 이 같은 설문조사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유은혜 당시 교육위 의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유 부총리에게 “신임 교육부 장관은 이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연내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고 2022대입 제도에서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 중3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에 이들의 요구가 반영되려면, 늦어도 내년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전에 학생부기록에 관한 교육부 훈령이 바뀌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기록에 관한 사항이 수정되면, 그에 따라 2022 대입제도 개편 내용이 바뀔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지난 8월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과 흡사 달라지는 부분이 생긴다면 다소간의 학생 혼란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한홍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서류형 제출서류서 예상문제 만들고 제시문형 기출문제로 출제유형 익히기

메트로가 꼭 짚는 대입전략

⑩ 서류형·제시문형 면접 대비

의학·교육계열, 인적성면접 준비



김명찬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장

질문이 다르므로 면접 문제가 공개되지 않는 반면 제시문형의 경우 공통의 제시문으로 면접을 진행하므로 면접 문제가 공개된다. 따라서

서류형의 경우 본인의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내용을 토대로 예상 질문을 뽑아 대비해야 한다. 활동의 결과보다는 과정과 동기에 대한 질문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자기주도성, 전공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등이 주된 평가요소이다.

제시문형의 경우 지방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출문제를 통해 제시문의 형식과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 대비해야 한다. 영어제시문의 경우 지문의 수준에 맞는 독해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수학과 과학 문제를 주는 경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수학과 과학문제 풀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국문제시문의 경우 대부분 논리적인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SKT-연세대 경차 자율주행 임시면허 취득

차량공유 서비스에 적합한 자율주행차 가 도로 위를 달린다.

SK텔레콤은 연세대 글로벌융합공학부 김시호 교수 연구팀과 손잡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차에 딥러닝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SK텔레콤과 연세대 연구팀이 이번엔 자율주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 모델은 기아차 ‘레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SK텔레콤과 연세대 연구팀이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차기 연세대 송도캠퍼스 내 도로를 달리고 있다. /SK텔레콤

윙동·게임 등 놀이중심 영어교육은 ‘허용’

교육부 유치원 영어금지 철폐

학부모 수요 고려해 심의 거쳐 운영
초1~2 방과후 영어금지 해제 가능성

영유아 시기 영어 교육 금지가 논란인 가운데 ‘놀이중심 영어 교육’이 전격 허용된다.

교육부는 4일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 영어 교육 요구 등을 종합 고려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치원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 문제에 대한 질문에 “유치원 영어는 놀이중심 방과 후 과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허용되는 영어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아의 흥미와 발달단계를 고려해 노래, 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형교육을 금지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금지된 상태다. 하지만 영유아 영어 교육에 대한 입장 변화에 따라 초등학교 영어 방과후 과정 금지도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 의견 수렴 결과, 학부모들은 놀이·유아 중심 유치원 교육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했으나, 영어교육수요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방과후 영어를 전면 금지할 경우 불필요한 유아 단계의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번 결정은 또 매년 10~11월에 유치원 학사일정을 결정해 다음해 원아 모집이 학부모 선택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향후 시도교육청은 놀이 중심 영어 원칙 하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유치원에서는 학부모 수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거쳐 운영하고, 참여하지 않는 유아에게는 별도 돌봄을 제공하도록 했다.

/한홍수 기자

성인 10명 중 9명 “수저계급론’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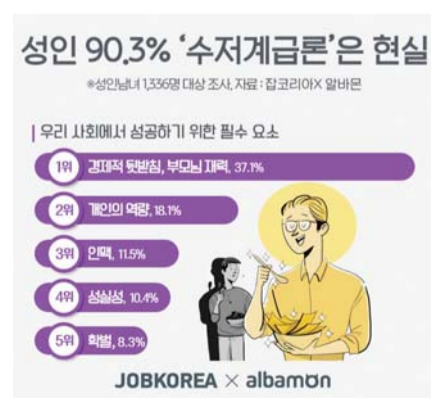
잡코리아·알바몬 1336명 설문

성공필수 요소 1위 ‘부모님 재력’

대한민국 성인남녀 10명 중 9명 이상은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표되는 ‘수저계급론’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부모님 재력’을 꼽았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성인남녀 1336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같이 나타났다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 90.3%가 ‘썩슬하지만 수저계급론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했다. 반면 ‘수저계급론’은 만들어낸 말일 뿐 ‘이라며 부인하는 응답은 9.7%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동기관에서 2년 전 조사결과 84.9%와 비



교하면 5.4%p 가량 증가한 것이다.

자신을 흙수저에 가깝다고 답한 응답자는 65.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금수저에 가깝다’는 응답은 1.2%로 미미

했다. 33.6%는 ‘금수저와 흙수저 사이, 은수저 정도’라고 했다.

수저계급론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우리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경제적 뒷받침 및 부모의 재력(37.1%)이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개인의 역량(18.1%)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다음으로 ▲인맥 및 대인관계 능력(11.5%) ▲본인의 성실성(10.4%) ▲학벌 및 출신학교(8.3%) 등이 5위권 안에 올랐다.

/한홍수 기자